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가보니

대기업 '보증'에 청년인재 3000명 몰려

호남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42곳 참여 "비전 공유하고 인재 확보로 동반성장"

"현대·기아차가 '보증'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믿고 취업할만하죠." 3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행사장. 이곳에서 만난 임종혁(26)씨는 "자동차 경기가 좋아 찾게 됐다"며 "지역에 있다보니 기업 정보가 부족했는데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선이공대학 메카

트로닉스과에 재학 중인 안 씨는 "호원·대우에이텍 등 중견기업에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채용박람회는 현대·기아차가 협력사의 인재 채용을 위해 마련했다. 국내 대기업 중 처음이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들이 인재 확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물론 행사 기획에서부터 운영, 홍보까지 채용박람회의 전 부문을 총괄 지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협력사 채용박람회가 동반성장고 고용창출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62만대 증산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협력사들에 기업 가치와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개별 회사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기획했다"며 "협력사의 인적 자원이 강화되면 자동차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채용박람회에는 호남권 부품협력사 42개 업체가 참여했다.

현대·기아차가 '보증'선 덕분에 3000여명의 청년 인재들이 몰렸다. 조선이공대에서는 자동차 및 기계 관련 학과에서 150여명이 단체로 참여했다. 조선대는 총장이 직접 나서 학생들의 취업을 도왔다. 조선대 선박해양학과 4학년 김영환(25) 씨는 "하반기 취업시즌에 앞서 준비 차원에서 나왔다"며 "면접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이들은 현장 취업보다는 면접 방법과 이미지 컨설팅 등에 관심이 더 많았다.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현대·기아차자동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암 구립공고 전기과 3년 박진영(18) 양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이미지 컨설팅, 면접 요령 등을 상담해줘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협력사들은 현대·기아차 1차 벤더(협력사)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주)호원 황승현 과장은 "현대·기아차가 나서서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열어주니 구직자들이 더 신뢰한다"며 "관리직과 생산직 각각 10명씩 2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생각보다 좋은 인재들이 많이 왔다"고 말했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동반성장 차원에서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바란다"며 "삼성·LG 등 다른 대기업들도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상의, 광주은행 분리 매각 청와대에 건의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홍석)는 3일 광주은행을 우리금융지주와 분리해 매각해 줄 것을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난 2일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일괄 매각 공고는 광주은행을 지역자본으로 인수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려는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광주·

전남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와 분리 매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지역 상공인들은 2010년 정부에서 공고한 우리금융지주의 병합매각 방법에 따라 광주은행 인수추진위원회, 광주은행 출자자협의회 등을 구성해 지역자본에 의한 지방은행 인수를 위해 노

력해왔다"며 "공적자금 투입 이후 고강도의 자구 노력과 경영혁신, 지역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2001년부터 발생한 당기순이익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재투자·환원될 수 있도록 광주은행은 지역자본에 의해 분리 매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생아 의료 환경 개선 후원 3일 현대백화점 광주점(점장 이재식·사진 오른쪽 세번째)이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민영돈) 신관 4층 병원정실에서 신생아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제공>

전화금융사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현대카드 보험 서비스

현대카드는 카드론 고객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하는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장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카드 카드론 이용자는 4월부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첫 대출이 사용 시점 기준으로 1년이다. 현대카드 자동응답전화(ARS), 인터넷,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카드론 이용 방법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고객은 현대카드 상담센터(1577-6000)에 신고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피해 금액을 100% 보장받는다. /연협뉴스

외국인 증권투자 올 들어 첫 감소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한국 증권(주식·채권) 순투자액이 4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4월 외국인 증권투자동향'에 따르면 4월중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액은 1조 6000억원 줄었다. 주식에서 6000억원, 채권에서 1조 원이 빠져나갔다. 주식의 경우 외국인들은 작년 11월 이후 매일 강하게 사들였다. 특히 올해 1월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액은 6조 2000억원에 달했다. 채권에서 외국인은 작년 12월에 3조 9000억원의 순유출을 나타냈으나 이후에는 매달 순투자를 이어왔다. 4월 주식매매 상황을 나라별로 보면, 영국은 6880억원을 순매도했다. 또 미국(2830억원), 룩셈부르크(1943억원), 프랑스(1475억원) 등도 매도우위를 나타냈다. 프랑스(3805억원), 카자흐스탄(3617억원), 노르웨이(1080억원) 등은 순투자를 나타냈다. /연협뉴스

근로장려금 대상 90만가구로 확대 국제청 이달말까지 접수

광주지방국세청은 5월 한 달간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3만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 신청 안내 가구 수는 세계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완화 등으로 전년보다 4만가구가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90만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는 전년보다 38만가구(73%)가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중 2011년 소득이 많은 쪽이 5월까지 신청해야만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중

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쳐야 한다. 신청 때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금액, 주택, 재산 등 신청자격 요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www.eitc.go.kr),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제청 전화상담실(126)이나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해도 된다. /최혜배기자 lion@kwangju.co.kr

특히 올해는 자녀가 없는 35만 가구까지 대상자가 확대됐으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70만 원까지 장려금을 준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 140만 원까지 받는다. 자녀가 2명이고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이면 17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혜배기자 lion@kwangju.co.kr

Summary box for tax information: 코스피지수 1,995.11 (-3.96), 코스닥지수 487.44 (+1.90), 금리 (국고채 3년) 3.44% (-0.02), 원·달러 환율 1,129.00원 (+1.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이탈리아 '레디쉬 스톤' 광주에 법인 설립

첨단산단에 치과용 연마기 생산공장

초정밀 연삭기를 생산하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기업 '레디쉬 스톤' (대표 피에트로 리가)이 지난 2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법인을 설립했다. 레디쉬 스톤은 치과용 및 귀금속 세공을 위한 연삭용 기구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치과용 부품·금형·액세서리 등 마무리 가공에 사

용되는 초정밀 연삭공구는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000억원, 종업원 수는 100여명이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하고 있다. 레디쉬 스톤은 앞으로 광주 첨단산단에 200억 원을 투자해 치과 및 귀금속 연마기기를 제조·생산할 계획이다. 또 광주테크노파크

타이타늄센터와 공동 연구개발과 비즈니스를 협력하게 된다. 한편,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대한치과기체협회와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 광주지역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구축 사업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 치과산업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세계적인 치과산업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Large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계보청기)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and the Sydney Opera House. Text includes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www.segistar.co.k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nationwide branch.